

## Martin Margiela의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장 정 임 · 이 연 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1996년 발표된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 선언은 구조주의 이론 뿐 아니라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이론에 대한 강력한 반기로, 서양 철학의 뿌리 깊은 전통인 이분법적 이론에 대항한 것이다.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Dis·De 탈현상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해체주의는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절대적 의미의 안정된 근원을 교란시켜 닫힌 체계를 거부하고 열린 사고를 추구하는 철학이론으로서 이는 건축, 패션, 미술 뿐 아니라 다원화된 현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시대사조, 생활양식 및 예술양식을 반영하는 문화적 코드로서 시각적인 형태로 전환되어 변화, 발전되고 있는 자끄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을 살펴보고 90년대 이후 스스로의 색깔을 고수하기 위한 끊임없는 실험과 노력으로 국제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벨기에 디자이너들 중에서 가장 전위적인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Martin Margiela의 작품에 표현된 해체 현상을 분석해보고, 탈구성 원리와 열린 사고에 의한 창의적인 복식 조형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에 대한 문헌적 연구와 패션잡지, 관련 웹사이트, 관련 문헌 등에서 추출된 사진자료 분석을 통한 Martin Margiela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양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후기 구조주의 사상 중 하나로,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Jacques Derrida의 이론이다. 1966년 10월 미국의 John's Hopkins대학에서 열렸던 "비평의 언어와 인문과학(The Languages of Criticism and The Science of Man)"이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Derrida는 "인문과학의 언술 행위에 있어서의 구조, 기호, 그리고 유희(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Human Science)"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구조주의의 원로 Levi-Strauss를 비판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체주의를 등장시켰다.

문학 비평 분야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그 동안의 경직되고 고정된 서구의 이성 중심 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문학비평 및 사회 비평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되었다. 이는 현재 서구의 사상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

†교신저자 E-mail : yiyhee@hanyang.ac.kr

하고 있으며, 최근의 비평이론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철학 및 문학 이론으로 차연, 상호텍스트성, 탈중심, 불확정성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그리고 1970년대 초반 이래로 인문 과학 분야, 특히 문학 비평과 사회 심리학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이제는 역사학, 신학, 법학, 예술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패션에서 해체라는 용어는 1989년 디테일즈(Details)라는 잡지에서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으며, 패션계에서는 1989년 10월 파리에서 Martin Margiela에 의해 선보인 90 S/S 컬렉션에서 해체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199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개최된 인프라 어패럴(Infra Apparel)전의 카탈로그 저자인 Richard Martin과 Herold Coda는 패션에서 해체주의 이론의 성립을 표면화하였다. 이들은 복식에서의 해체는 “텍스트(복식)안에서 반대적인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인공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외형을 혼란시킴으로써 파괴하거나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후 ‘94-95 F/W 컬렉션에서 등장한 Masaki Matsushima(마사키 마쓰시마)의 ‘쇼를 거점으로’ 해체 룩 ‘이라는 새로운 패션 용어가 등장하였다.

‘패션 디자인에서의 해체’는 세기말을 바라보는 90년대 패션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는 노출, 빈곤, 파괴, 탈구성, 상호텍스트성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디자인 원리의 요소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구성하던 기존의 의류 형태에 의존하는 패션 경향을 해체시키고 몸의 움직임과 착용자의 내적인 멋에 따라 의복의 형태를 결정하려고 한 것이다. 해체 패션의 성격은 Frank Gehry Form(게리의 방식)에서와 같이 규범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개념적 특성 중 디자인 개념에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것으로 김지연과 김해정의 논문에서 연구된 Dis·De 탈현상,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차연을 들 수 있다.

Martin Margiela에게 붙여진 ‘무정부주의자’ 혹은 ‘파괴자’라는 별명은 컬렉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패션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현대 패션계에 가장 독창적인 양식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의 해체주의는 조형이 우회적 표현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패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가 컬렉션에서 보여주듯 좀 더 다르고, 좀 더 실험적인 패션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체작업의 범위가 가장 왕성하게 보여 지는 그의 작품과 컬렉션은 퍼포먼스적 경향이 강하다. 그는 단순한 해체주의자를 뛰어넘어 풍부한 창의력과 다양한 아이템의 상호 인용을 대조적인 것으로 접대성하여 형태들이 서로 독립적이지만 함께 표현하고 중첩시켜 불완전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체하여 전혀 색다른 작품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Martin Margiela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차연은 과거, 현재, 미래를 결합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공간의 개념 해체로 과거-현재-미래 양식의 결합, 의복의 기존 개념의 변화로 탈색, 패치워크 율푼기, outseam기법의 표현방법으로 나타난다. 그 효과는 과거에 만들어진 것들을 조합하여 새로움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특별한 형태나 형식을 미리 고정시키지 않고 착용자에 의해 완결되는 무형식의 형태는 우연성과 열린 개념에 의한 미완성의 미학으로서 자유로움을 나타낸다.

상호텍스트성은 경계가 존재하는 성 등을 해체하여 범주가 없어지도록 서로의 흔적을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그 표현 방법은 성의 복합적 표현기법, 상반된 복종의 차이적 보충관계의 기법, 상반된 이미지의 상호 언급적 기법, 이질적 소재의 병행 인용의 기법, 속옷의 겉옷화 기법을 서로 구분하여 표현하지 않고 모두 집대성하여 상호텍스트성의 관계 속에서 상호언급을 통하여 표현했다. 이것은 복식자체의 경계를 허물게 되어 패션과 비패션의 경계성에서 병행인용으로 전환되어 다해석 가능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효과를 발한다.

불확정성은 모든 개념을 비결정적인 요소로서 체계를 해체시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독창적인 조형감각의 표현과 함께 착장법의 불확실성의 원리를 통해 표현 기법을 제시하여 매기, 묶기, 두르기, 구멍, 용도 불분명한 소매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특별한 형태나 형식을 미리 고정시키지 않고 착용자에 의해 완결되는 무형식의 형태는 우연성, 열린 개념에 의한 미완성의 미학으로서 자유로운 정신을 나타낸다.

탈현상은 형태파괴, 기존의 구성방식을 파괴, '조형'의 개념을 해체하고 무가치하고 소외된 것들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일체의 중심주의를 해체한 개념으로 의복 디자인 요소인 균형을 파괴시켜 비균형적 기법으로 표출되는 비구조적인 표현 기법을 다룸에서 중심 밀단 지퍼가 기울어진 옷, 상하좌우가 다른 옷, 슬래쉬, 찢기, 구멍 뚫기, 노출 등의 표현기법으로 나타나며, 의복의 기능성, 목적론을 해체시켜 불규칙, 불완전, 비대칭 등의 추가 부각된 새로운 디자인 원리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닫힌 세계에 대한 저항과 동시에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해체주의적 사고는 복식에 있어서 옷차림의 규범이 분열, 혼돈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 시대의 경향과 맞물려, 통념을 깨뜨리는 창조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rrida의 해체주의 이론 중,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Dis, De 탈현상을 마르탱 마르지엘라의 작품에 접목시켜 그의 작품에 내재된 해체현상을 살펴보았다.

Derrida의 해체주의 이론 중, 차연은 과거, 현재, 미래를 결합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며 상호텍스트성은 경계가 존재하는 성(性) 등을 해체하

여 범주가 없어지도록 서로의 흔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의미의 불확정성은 모든 개념은 비결정적인 요소로서 체계를 해체시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Dis, De 탈현상은 형태와 기존의 구성방식을 파괴함으로써 ‘조형’의 개념을 해체하고 부가치하고 소외된 것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패션에서의 차연은 과거-현재-미래의 복식을 결합시키거나 복고풍의 형식으로 과거의 복식을 현대의 양식으로 재조명한 디자인으로 나타나며 상호텍스트성은 성역할 고정관, 아이템, 또는 T.P.O.에 적합한 착장 방법을 해체한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복식의 착용으로 완결되는 잠재적인 형태, 레이어링 기법 등이 의미의 불확정성을 나타내며, 탈중심, 탈구성, 위치전환으로서의 전위, 무질서한 디자인 원리 등으로 Dis, De 탈현상을 표현할 수 있다.

Martin Margiela는 옷의 기본 자체를 바꾸는 다양한 아이템의 상호인용, 병행 인용을 통해 복식을 해체함으로써 색다른 작품세계를 제시하였다. 의복구조의 분해적 폭로와 낭만적인 부패성에 대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전통적인 중력 방향의 수직, 수평적 앞 중심선 등을 탈피하고 비대칭적인 사선을 이루면서 탈중심화 표현을 제시하였다. 마르탱 마르지엘라의 실루엣을 해체시키고 그것들을 재구성하는 분해 작업은 표면상 부분적, 조각적, 파편적으로 보이지만, 부서지지 않은 실체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파괴하고 있을 뿐이며, 다시 재구성됨으로써 구조가 뚜렷해지고 또한 의복의 대치와 화합, 우아함과 복잡함, 파괴와 결속의 양면가치를 제시한다.

이와 같이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해체주의적 사고는 절대 가치나 전통적인 조화라는 기준을 벗어나, 기존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디자인 접근방법을 통해, 상식을 뛰어넘는 무한한 영감의 원천으로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열린 개념의 미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해체주의의 정신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미에 대한 경고로서의 부정적인 면을 갖기도 하지만 해체주의 패션은 그 시대 그 사회 속의 소비자의 욕구와 시대정신의 변화를 정확히 대변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디자인을 풀어나갈 열쇠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현대 사회에 있어 예술의 창조 개념은 보다 확장되고 좀 더 새롭게 유연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문화적 재생산의 잠재력을 가지고 현대인의 욕구를 한층 충족시켜 주리라 여겨진다.